

화순군, 사평·용강지구 189억 원 투입 '재해 위험지역 정비'



침수위험이 있는 사평 5일 시장 일면

행안부 국비 사업으로 반영... 위험요인 완전 제거 "인명 피해 예방·사유 재산 보호·지역경제 활성화"

화순군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사평면 사평리와 도암면 용강리의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행정안전부 국비 신규 사업에 반영돼 사평지구 133억 원, 용강지

구 5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평면 사평지구는 저류지 침수와 하천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소하천과 배수로를 확충하고 저류지와 배수 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도암면 용강지구는 폭이 좁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소하천을 확장해 정

비할 계획이다.

특히, 사평지구는 2004년 태풍 피해와 2009년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됐고 2015년 5월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돼 재해 위험요인을 완전히 해소해야 할 지역이다.

그동안 사평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2021년 신규 국비 사업으로 확정됐지만, 재해 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행정안전부에 컨설팅을 요청해 협의한 결과 예산 사업비 28억에서 133억으로 105억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인명 피해 예방과 사유 재산 보호는 물론 사평시장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성군 민원서비스 '나'이스

행안부·국민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나 등급 획득

장성군이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고득점을 얻으며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장성군이 상위 등급인 '나' 등급을 획득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

로 한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 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등 총 3개 분야 5개 항목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장성군은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화순, 영광군과 함께 전남도 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기록해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군은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과 민원인 만



족도 향상,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 등의 항목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소통하고, 보다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상반기 지역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공업무 지원·환경정비 등

담양군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25일까지 '2021년 상반기 지역공공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지역방역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공체 일자리 사업은 공공업무 지원, 환경정비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은 발원체 및 방역업무 지원 사업으로 운영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5%이하(1인 가구는 120%)이면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지역공공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공공근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지역방역일자리 2월 15일부터 5월까지 4개월이며, 사업 참여 전 방역수칙 준수와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풀뿌리경제과(☎061-380-285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참여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박차 제1기 아동참여단 출범...관내 중·고교 학생 23명 구성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인 나주시가 차별화된 아동정책 발굴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관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나주시는 관내 중·고교 학생들로 구성된 '제1기 아동참여단'을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불평등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시는 아동참여단 출범을 계기로 아동의 눈높이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해 공개·추천 모집을 통해 선발된 23명의 아동참여단원들은 '놀이·여가', '참여·시민권', '보건·사회서비스', '안전·보호', '가정환경', '교육' 등 6대 아동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정

책 제안과 모니터링, 홍보 콘텐츠 개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동참여단 출범과 함께 나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비전을 내포하는 공식 슬로건(문구)으로 '아이랑 함께 꿈꾸요, 나주랑 함께 키워요'를 선정했다.

이 문구는 지난 해 12월 실시한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300여건의 응모작 중 아동권리대변인(옴부즈퍼슨)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여흥석 씨 作)으로 선정됐다.

시는 최근 시장실에서 아동참여단 위촉장 전달식과 아동친화도시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위촉 및 시상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소인원 참여 지침에 따라 아동참여단 위원장과 슬로건 최우수작 수상자만 참여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동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창업지원 눈에 띄네"

신중년 창업 2천만원·중양로 창업에도 2천만원 지원



곡성군 창업지원을 받아 마카롱 가게를 오픈한 손스마마

자나 곡성에서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중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총 5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이 되면 부가가치

곡성군이 2021년 창업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먼저 만 50세 이상이라면 신중년 창업지원 사업을 눈여겨봐야 한다. 신중년 창업지원 사업은 조기퇴직

세를 제외하고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감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양로 리브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리브 프로젝트는 곡성을 중심 시가지인 중앙로 거리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창업 지원 규모는 총 4개소이며 곡성을 중앙로 리브프로젝트 사업구역 내에서 창업을 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두 가지 사업 모두 2월 5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도시경제과(061-360-87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곡성군은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 지원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곡성=양혜영 기자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허균 <도문대작>

